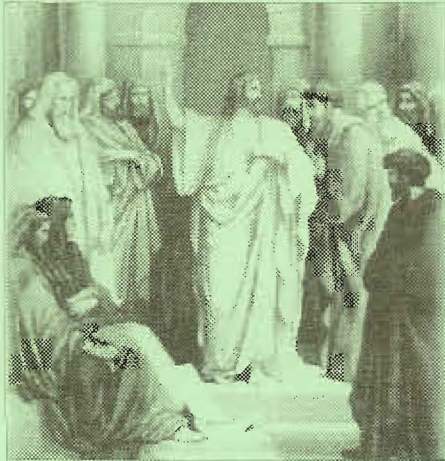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7주일
제34권 13호(가해) 2014.2.23

[묵상]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미쳐버리겠네!!!!

참으로 알아듣기 어렵다.
바보 취급당하기 알맞다.
"바보같이 맞고 왔냐? 니도 똑같이 해주지?" (동태복수)
그래 바보같이 나만 손해 볼 수는 없지!

근데,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내주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 주라신다.
그래서 미쳐버리겠다.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마음
그 뿌리는 분명 미움에 있다.
떨쳐버리고,
벗어나고 싶어 기도 중에 도움을 청하였다.

미움은 스스로 노예됨,
스스로 종살이를 자청하는 것이라신다.
그래서 또 미쳐버리겠다.

신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며,
미쳐버릴 것 같은 것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용기와 희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신다.
한번 미쳐버려보자!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핀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락처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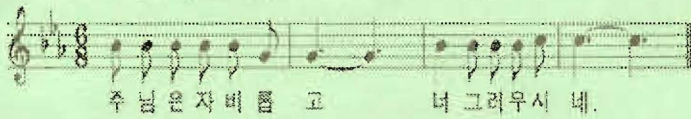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임재화 안나, 강용운 요셉 & 강용길
	(생)성호재 시몬 & 영님 엘리사벳 & 유진 로렌스, 손재승 베드로 가정, 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김시형 시릴로, 김성일 바오로,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임재화 안나, 이기형 프란치스코, 주용범 아브라함
	(생)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이원영 로즈마리 & 이원재 베드로, 이정태 다윗 & 이명자 아가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9,1-2,17-18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해 뜨는 데서 지는 태양이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3,16-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5,38-48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금껏 높이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249	249
봉헌	269	269	272
성체	Breaking of the Bread	291	283
파견	야곱의 축복	241	233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나. 나주의 기적이나 사적 계시를 성역화하는 성모 신심

(이는 1985년부터 나주의 윤 올리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이며, 그들이 발표하고 선전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나주의 어느 성모상에서 1985년 6월 30일부터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 성모 발현’이라는 사적 계시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16일을 시작으로 이른바 ‘성체의 기적’이 그의 사적 계시의 절정을 이룬다.

미사 중 입속에서 성체의 가장자리부터 차츰 피와 살로 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2년까지 21차례의 성체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3년 2월 8일에는 8번의 기적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 성모님에게서 수차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는 1994년 12월 30일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공희 대주교는 나주 기념 행사를 금지하고 관련된 사제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지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적 계시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권한은 해당 교구장에게 있다. 이른바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그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성체의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교회의 믿을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주에서의 기이한 현상들은 신앙적으로 참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어떤 초능력에 의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제반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나주의 성모님 메시지’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가 유효하고, 교도권에 순종할 것을 명한다. 나주의 성모상과 관련된 사적 장소에서 미사전례 성사집전을 금한 이전의 조치가 유효하고, 매주 목요일, 매달 첫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과 집회를 금지한다.

이후 2001년 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5월 회람 ‘성모 성월을 마치며’를 통해 윤공희 대주교의 공지를 재확인하고 교도권에 순명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명백한 금지령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나주를 찾아가고, 관련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과 매달 첫 토요일에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교도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계속>

마음이 식스 팩인 사람

어느 별나라에서 온 멋진 외계인 청년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젊음을 유지한 채 400년을 죽지 않고 살아온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죽지 않고 몇백 년을 산다면 행복할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영생은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란 것은 '지금'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눴던 대화,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오늘 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든 굳이 열정을 쏟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하지 못한 일은 다음에 하면 그만이고, 오늘 무언가 잘못되었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아니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별나라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닌,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보통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모하는 오늘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애써 오늘 맺힌 일은 오늘 풀어야 합니다. 원수진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른 뻘마져 돌려 대는 일, 또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는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 다른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를 처음 배운다고 할 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좀처럼 늘지를 않고, 늘 넘어지기만 하면 "에이, 뭐 내가 이 나이에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만 배울래."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당에서 구역장·반장 등 성당 봉사를 하다 보면, 그래선 안 될 일일

텐데 상식적이지 못한 터무니없는 일, 억울한 일, 서로 불복하는 일 등 갖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반장일 못 해 먹겠다"고 손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교우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누구누구 보기 싫어 성당 못 나가겠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맞닥뜨려서 '극복'할 문제입니다. 극복함으로써 '면역력' 내지는 '내성'(耐性)을 키울 일입니다. 힘들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 늘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 맞대기도 힘든데 다른 뻘마져 돌려 대라고? 하이고, 댕들이 나 잘해 보세요. 난 여기서 그만 둘래요."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해나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안 되는 일일수록 반복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식스 팩! 이 식스 팩은 육체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역시 반복 훈련을 통해 식스 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가짐까지 식스 팩인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얼마나 선하지 않았으면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 그래야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 다음 날을 위한 보험이거나 누굴 대신한 희생이 아니며 보상을 바란 거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라는 게 있으면 착하게 살겠다는 걸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3월5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3월5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3월2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 오후
-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육과 단식)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월7,15,22,29, 4월4,11일)

◆ 첫토요일 신심미사 : 3월1일(토) 오전 8시30분

◆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헌금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KAPA)와 남미·아프리카 등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헌금이 3월 첫째주일(특전미사포함)에 있겠습니다. 이 헌금은 매월있는 월례 2차헌금을 대신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교 지원 양업체 친교음식 판매

- 일시 : 3월2일(주일)
- 메뉴 : 족발, 빈대떡, 도토리묵 등 맛있는 홈메이드 반찬류와 양업체가 직접 제조한 막걸리
- 낮미사후 친교점심 : 콩나물국밥을 무료로 드립니다.
- 판매수익금 전액 : 한국학교에 도네이션합니다.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양업체장 ☎(213)505-2941

✽ 프란치스코 교황님 신임추기경 19명 서임 ✽

오늘주일(23일) 바티칸에서 축하미사 주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 베드로 사도와 축일인 22일(토), 바티칸에서 열리는 추기경회의 중에 염수정 대주교를 포함하여 신임 추기경을 서임하며, 다음날인 23일(주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포함한 새 추기경들과 함께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를 주례합니다.

지난 1월12일 추기경으로 임명된 염수정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1969년 서임), 정진석 추기경(2006년 서임)에 이어 한국 출신으로 세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서임 감사미사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서임 감사미사를 3월4일(화)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추기경님을 위한 영적예물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님을 위한 영적 예물에 많은 신자들이 동참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적예물 : ① 미사 및 영성체 ② 추기경을 위한 기도 ③ 묵주기도 ④ 화살기도

염수정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

◆ '기도의 언덕'을 이용합니다.

-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향을 적어서 성체 조배실에 비치된 '기도의 언덕' 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23일(주일) : P.V.1(육개장 \$3)
* 주일학교(4학년 햄&치즈 샌드위치)
- 3월2일(주일) : 양업체(콩나물국밥 \$0)
* 주일학교(11,12학년 김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강미순	강순복	고천용	김교복	김성우	김종훈		강미순	고천용	김교복	김찬구	김충섭	김현숙
	김찬구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박민환	박선희		박민환	박선희	신순철	안태갑	양영관	이경수
	송재훈	신순철	안태갑	양영관	육근주	이경수		이남현	이우성	이일길	이효세	임 순	정규숙
	이남현	이우성	이효세	임 순	정규숙	정동호		정동호	조준제	차인수	최기호	최원석	최이원
	조준제	주영석	주이자	차인수	최기호	최원석		한자환	황인중				
	최의수	최이원	한장환	황인중									
합계 : \$3,350							합계 : \$1,830						
주일미사 헌금 : \$2,476							주보 광고후원 : \$7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투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7학년~8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3일까지 15명 자리남았음(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한국학교 SAT반 학생모집중

- 대상 :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토마스성당 '영어권&한국어권 합동 전례음악 찬양의 밤'

- 오렌지카운티 성 토마스 성당이 처음으로 한국어권과 영어권 전례음악 밴드가 함께하는 신나는 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아름답고 신나는 노래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찬미합니다.
- 일시 : 2월28일(금) 오후 8시
 - 장소 : 성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문의 : 고상욱 대견안드레아 (714)772-3995 ex:105

☺ 서로 웃으면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2/16(주일) 오전 8시 온천피정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2/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2/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8(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진숙 로사 592-6712 2/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경숙 수산나 753-6959 2/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2/11(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호창 요셉 213-550-6653 2/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오세원 아타나시오 569-0482 2/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웬마 530-3470 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티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21(금) 오후 7시 성당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2/14(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성미선 리디아 944-4577 2/15(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427-1927 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저녁 무렵, 한 청년이 찾아왔다. 이 청년은 이른바, 인터섹슈얼(양성인)이었다. 인생의 반을 남자로 살아왔지만, 여성적으로 변화하는 몸과 더불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이다.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신앙 안에서 삶의 답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조심스레 수술을 생각해보았다고 물으니 자신은 자연체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주님의 동행을 청하며 태생 소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자들이 소경이 된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이, 혹은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러된 것”(요한 9, 3)이라 말씀하셨다. 그렇듯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어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청했다.

이어 나환우의 성자 다미안 신부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을 갔을 때, 나환우들은 “하느님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만의 하느님일 거라고, 아니면 왜 이렇게 자신들을 버리셨냐고.” 따졌다.

그들의 냉대 속에 신부님은 이런 기도를 바쳤다. “하느님, 저들을 위해 제발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무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무엇이 신부님으로 하여금 저런 기도를 바치게 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고, 그 기도는 인생을 망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가 아니었겠냐고!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처음 올리는 미사 강론에서 “형제 여러분! 이제야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말씀에 몰로카이 섬의 나환우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꼈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만약, 그가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 안에서만 찾지 않는다. 신앙인의 행복이란, 복음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성(性)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박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제나 수도자, 열심한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며 위로했다. 만

약, 이 청년이 진정 마음속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면담이 끝나고 배가 고팠다.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이 청년의 밝아진 얼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 / 일본 히로시마 선교
gentium92@yahoo.co.kr

- 순교의 길을 따라 -

어떤 사람이 시복시성에 오를 수 있을까.

인종이나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성덕의 향기를 드러내고 죽어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시복시성의 후보로 천거될 수 있다. 교황청 시성성에서 반포한 훈령『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 2007)에서는 “시복시성 안건은, 삶과 죽음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여 성덕의 명성을 누리거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 행위로서 순교의 명성을 누리는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복시성 안건의 대상이 되더라도,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시성성 시행령은 사망 후 5년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복시성에 추천될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의 평판 ②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의 덕행실천이나 순교 ③ 시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 경과라는 내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첫째, 성덕의 평판과 둘째, 영웅적인 덕행 실천이나 순교는 시복시성 안건의 필수적인 대상이 되며 또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다음, 시성에 중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시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주교는 대상자의 생애와 안건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시성성에 보내어 교황청에서 시성 안건에 장애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성 안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도 사망 후 3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0년이 지난 경우, 주교는 안건의 착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청구인들 편에서 사기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끝으로 재판관은 기록문서와 증거에서 윤리적 확실성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교회공동체의 음성(사료 및 증거에 대한 교구심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발생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수홍 신부 / 부산교구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